

20131212 성자의 혼체에 대한 질문

작성일 : 2013. 10. 25(금) PM 12:00

작성자 : 백상희

(길을 걷다가 성자와 생각으로 대화하던 중
평소 성자의 혼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물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으로 깨닫게 해 주신 성자의 말씀입니다.)

* 성자의 말씀 *

네 영이 본체라면
네 육이 본체인 것이다.
영계에서 너희 선생을 만날 때도
혼체를 보는 자가 있고
영체를 만나는 자가 있다.
그와 같이 나 성자도
영의 본체가 있고
나의 혼체가 존재한다.

(그럼, 성약성을 가면
성자의 본체와 혼체를 볼 수 있나요?
지금은 선생님의 영 혼 육을 쓰시고 나타난다고 배웠어요)

그와 같이 그러하다.
성약성을 가도
나의 혼체를 보는 자가 있을 것이고
나의 영의 본체를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저희도 성약성을 가면
혼체와 영체가 또 다르게 나타나게 되나요?
성자께서는 왜 혼체와 본체가 필요하신 거예요?
천국에서 본체로만 활동하시면 안 되나요?
너무 너무 궁금해요. 깨닫게 해주세요)

너희 영과 혼의 완성 단계에 따라
성약성을 가도
다른 곳에 위치하게 된다.
성약성도 단순히 100선 200선 300선으로만
나뉘지는 것이 아니다.

100선 200선 300선이라는 것은
크게 구분해 놓은 것이다.
세밀하게 따지면
엄청난 세계인 것이야.
가령 내가 속한 세계보다
밑의 단계에 사는 자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면
그 자에게 너는 영체보다 낮은
너의 혼체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네가 누군가를 보고 싶다 해도
너의 수준대로 그 사람이 보이게 된다.
한마디로 상대성의 세계인 것이다.
네가 최고 단계의
나 성자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면
네가 그 단계의 완성된 모습을 갖추어야
가능한 일이다.
혼체와 영의 본체를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상대적 수준에 따라 보이는 것이야.
너희가 욕으로 거하니
너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너희와 같은
너희 선생 욕이 필요한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다.
너희 선생 욕이 묵인바 되어
욕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으니
혼체와 영체를 쓰고 나타나는 것이다.
수준대로 나를 만난다.
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차원대로 각각 깊이가 다르고
혼체를 보는 자, 영체를 보는 자
모두 각각이다.
그 수준은 정확히 나 성자만 아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차원을 높이라고 하는 것이야.
차원을 높이면 하나로 보인다.
나 성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너희 차원에 따라 나타나지만
너희가 차원 높여 올라오면 정확하게
내 본연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 본연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궁금하지 않느냐?

그것조차 궁금해 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

내 육인 너희 선생을
대하는 것과 같이 그러하다.
너희 보는 눈에 따라
각자가 느끼는 선생의 모습이 다르지 않느냐.
진정한 선생의 본연의 모습을
아는 자가 누가 있을까.

각자의 차원과 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느껴지는 나 성자이고 선생이기에
일대일 각자의 사랑인 것이다.
섭리사에서도 차원대로 사랑을 나누고 있다.
그 차원은 이루 말할 수 없듯이
성약성 그 곳도
너희의 차원대로 오르게 되고
나를 보고 느끼게 된다.
그것이 성약성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육이 있는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나를
가까이 보고 느끼고 사랑하며 사는 자는
그날에도 그럴 것이며
지금 나를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사는 자는
그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 매일 나를
만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의 사랑은 육을 초월한 사랑이니
언제나 어디서나
24시간 나와 동행하며 사랑할 수 있다.
지금 나를 보는 차원에 사는 자는
너희 혼과 영이
나를 늘 보는 성약성의 세계에 가는 것이다.
지금의 삶이 어떠한 지가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보아라.
자기의 차원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라.
그리고 날마다 도전하여 높이높이 올라라.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성자와 선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너의 차원을 반영한 나의 모습이니
그것에 만족하지 말아라.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져라.
성자 본체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느냐?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어요. 그리고 더 알고 싶어요.)

차원 높여 올라오라.
너를 완성하라.
그리고 더욱 대화에 힘쓰라.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 집중해.
알겠냐.